

# “남악-무안읍 2개축 도·농 균형발전...누구나 살고싶은 곳으로”

##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김철주 무안군수

김철주(57) 무안군수는 지난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년가량 민선 5기 무안 군정을 이끌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선 무난하게 당선돼 재선 군수로 향후 4년간 '무안호'의 키를 잡게 됐다.

김 군수는 무안군을 시로 승격시키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구수에서 해남군을 제치고 전남지역 최대 군으로 도약한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는 늦어도 2019년이면 무안군이 시로 승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악 신도시가 있는 삼향읍 인구가 2019년이면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그전에도 특별법을 만들어 도청 소재지 중 시가 아닌 충남 흥성군과 연대해 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박홍을 목표시장이라 다시 달구고 있는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선 무안·목포·신안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고 정서적으로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군수로부터 무안군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았다.

-민선 6기 군정 운영방향은.

▲김동주는 행정, 섬기는 행정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무안, 군민 모두가 행복한 무안을 만들어가겠다.

이를 위해 농촌이 잘살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남악을 중심으로 한 도시와 무안읍을 중심으로 한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인구 8만명 돌파를 계기로 무안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언제쯤 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그동안 시 승격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08년 1월에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가 결성될 당시에는 시 승격에 대한 실현성이 부족했으나 올해 4월에 각계각층 직능대표와 군민들로 '제2기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 승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시 승격을 위해 두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군 소재지는 읍에 준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국내에서 도청소재지가 있는 곳 가운데 시가 아닌 곳은 무안과 충남 흥성군뿐이다. 따라서 흥성군과 연계해 특별법을 만들어 '도청 소재지는 시에 준치한다'라는 문구를 만들면 간단하다.

두 번째 방안은 남악신도시(삼향읍) 인구를 5만명으로 늘리면 된다. 시 승격 요건 가운데 읍 인구가 5만명을 넘으면 시로 승격한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삼향읍 인구는 3만3623명으로 5년 사이에 1만1000여명이 증가했다. 연평균 8.42%의 증가율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2019년이면 삼향읍 인구가 5만명이 된다. 앞으로 남악신도시의 하인 오룡지구 개발이든 인구가 더 늘어나 5만명 달성시기가 앞당겨 질 가능성도 있다.

-목포시를 중심으로 무안반도 통합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이에 대한 무안군의 입장은.

▲무안반도 통합은 1994년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20년 동안 벌써 6번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때마다 무안군민의 선택은 목포시에 예측되는 무안반도 통합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군민의 뜻을 6번이나 확실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는 자주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어찌



**김철주 군수 프로필** ▲1957년 무안 출생 ▲조선대 약학과 졸업 ▲전남약국 대표 ▲7·8대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

에도 맞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에도 맞지 않다.

무안반도 통합은 인위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정서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무안·목포·신안 등 3개 시·군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논의할 문제다.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는 어

떻게 되나.

▲현재 신도시 개발주체인 전남개발공사와 소송중이다. 주요 쟁점이 개발이익금이 해당지역에 귀속되느냐 안되느냐인데, 우리는 이익금의 일부는 당연히 해당지역인 무안군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 2019년 시 승격 추진...양파 재배면적의 80% 기계화 인위적인 무안반도 통합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돼

▲양파 주산지로서 최근과 같은 양파 파동을 막는 방안은 없을까.

▲사실 지난해부터 재고 양파가 많아 가격 불안정을 예측하고 올 2월부터 재고양파 해소, 조생양파 가격 지지대책 등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그 결과 조생양파 가격지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중·만생종 양파의 경우 기대만큼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

따라서 중·만생종도 정부차원에서 수매비축 물량을 2만8000t에서 5만t으로 확대해 줄 것과 1만t인 수출물량을 3만t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다행히 정부가 아직 돼 있는 양파 1만2000t을 우선 수매하기로 해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3~4년 주기로 반복되는 양파 파동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기계화를 통

합해 양파 재배면적의 80% 기계화

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파 재배면적의 80%는 인위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정서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무안·목포·신안 등 3개 시·군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논의할 문제다.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는 어떻게 되나.

▲현재 신도시 개발주체인 전남개발공사와 소송중이다. 주요 쟁점이 개발이익금이 해당지역에 귀속되느냐 안되느냐인데, 우리는 이익금의 일부는 당연히 해당지역인 무안군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따라서 중·만생종도 정부차원에서 수매비축 물량을 2만8000t에서 5만t으로 확대해 줄 것과 1만t인 수출물량을 3만t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다행히 정부가 아직 돼 있는 양파 1만2000t을 우선 수매하기로 해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3~4년 주기로 반복되는 양파 파동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기계화를 통



합해 양파 재배면적의 80% 기계화

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파 재배면적의 80%는 인위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정서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무안·목포·신안 등 3개 시·군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논의할 문제다.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는 어떻게 되나.

▲현재 신도시 개발주체인 전남개발공사와 소송중이다. 주요 쟁점이 개발이익금이 해당지역에 귀속되느냐 안되느냐인데, 우리는 이익금의 일부는 당연히 해당지역인 무안군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따라서 중·만생종도 정부차원에서 수매비축 물량을 2만8000t에서 5만t으로 확대해 줄 것과 1만t인 수출물량을 3만t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다행히 정부가 아직 돼 있는 양파 1만2000t을 우선 수매하기로 해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3~4년 주기로 반복되는 양파 파동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기계화를 통

가 높아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과제다. 전세기를 통한 무안~중국 또는 동남아 직항로를 확보해 공항과 인근 상권이 살아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상생하는 정책을 펼쳐 공항 활성화에 앞장을 서줘야 한다.

우리도 KTX가 지나게 될 무안 국제공항 일원에 항공 물류센터를 조성해 물류허브를 육성하고 공항지구내 설치가 확정된 국도교통부 항공훈련원의 연관 산업인 항공기 정비·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국제항공산업 복합지구를 조성해 향후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의 선도산업으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

마침 한국공항공사에서 국내 항공중심 인력육성을 위한 비행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해 무안공항 주변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흑산도공항 관광수요에 대비한 무안지역 항공사 설립과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

-무안읍을 2만명 이상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플랜은.

▲무안 거점교와 남악교를 전국 최고의 명문고로 육성하고 기숙형 중학교 설치 등 공교육 시설을 확충하면 자녀교육 때문에 무안을 떠나는 인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안읍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함께 시장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단지 신축, 무안읍 중심지 및 낙지거리 활성화 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해 무안읍을 인구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 생각이다.

여기에 운남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하고 몽탄에 농공단지 조성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무안읍을 중심으로 정계·몽탄·운남 등 주변이 활성화되면서 가시적인 인구유입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차원의 '행복택시'는 어떻게 운영되나.

▲우리 군이 운영하는 행복택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버스 노선이 폐지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먼 거리를 걸어 가야하는 교통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했다. 행복택시는 농·어촌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마을에 택시를 운영하는 제도로,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은 버스요금만 내고 그 이상의 요금은 군에서 마을 주민에게 지원한다. 현재 9개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여개 마을을 더 추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수요

### 시 승격 추진 어떻게

‘도청소재지는 시에 준치해야’ 국회 특별법 제정 추진하고 남악신도시 인구 5만명으로 늘려 시 승격 요건 충족시킬 것

###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은

중국·동남아 직항로 확대 물류센터·비행훈련센터 설립 항공산업 복합지구 조성해 공항과 인근 상권 살릴 것

### 무안읍 2만 자족도시 플랜은

거점교 육성·기숙형 중학교 설립 전통시장 현대화·낙지거리 활성화 운남산단·몽탄농공단지 등 조성 기업 유치 통해 인구 유입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오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원골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since 1952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